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10, 2022 Q3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퇴직연금 시장 (2022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4.8%, 5.2%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DC 도입 및 IRP 자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DB 자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1년 12월 58.8% → 2022년 6월 56.7%). 2021년 12월 대비 DB 자산은 37,297억원 감소하였으며 (원리금보장형 42,366억원 감소, 원리금비보장형 5,087억원 증가), 모든 업권에서 원리금보장형 자산이 감소하였음.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80.2%, 19.8%로 여전히 대부분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2021년 12월 대비 원리금보장형 자산은 25,042억원 증가하였으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은 10,305억원 감소하였음. 최근 제공 이율 상승 및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59,131	60,400	36,800	256,331	86.6%
원리금비보장형	8,667	14,929	15,956	39,552	13.4%
총 합	167,798	75,329	52,756	295,883	100%
비중	56.7%	25.5%	17.8%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65,356	3,749	69,105	41.2%
증권	32,587	3,659	36,246	21.6%
생명보험	49,625	1,253	50,878	30.3%
화재보험	11,563	6	11,569	6.9%
총 합	159,131	8,667	167,798	100%
비중	94.8%	5.2%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42,990	5,735	48,725	64.7%
증권	7,134	7,449	14,583	19.4%
생명보험	8,616	1,611	10,227	13.6%
화재보험	1,660	134	1,794	2.4%
총 합	60,400	14,929	75,329	100%
비중	80.2%	19.8%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2년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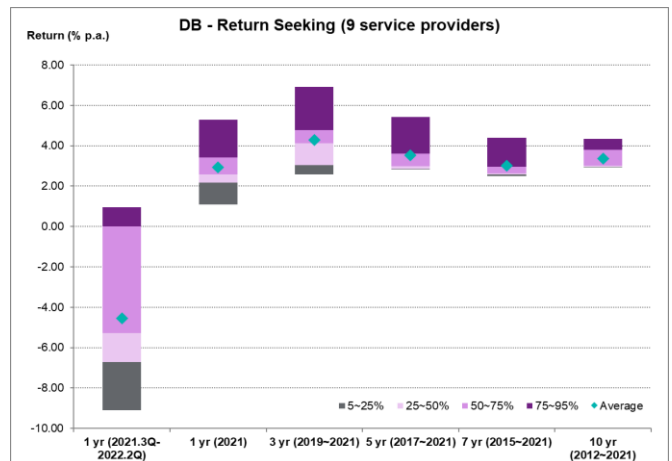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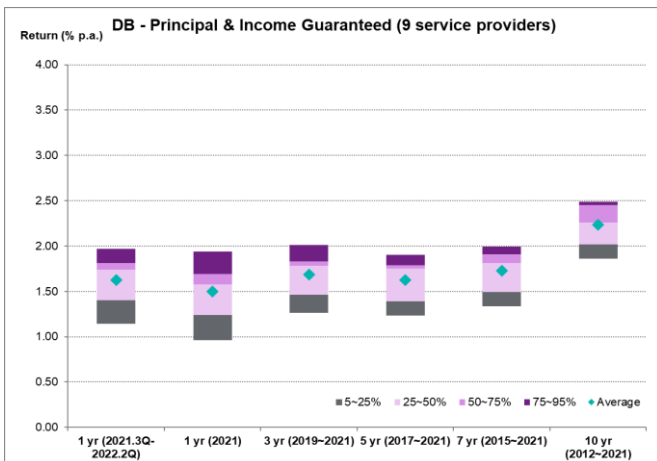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보장형 자산 감소하였으며, 삼성생명(-5,201억원), 신한은행(-4,006억원), 현대차증권(-3,975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1년 12월 대비 대체로 상승하였음.
- 단기 예금 판매가 많은 은행은 보험 및 증권업 사업자 대비 장/단기 수익률 모두 열세 보임.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2년 2분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1년 12월 대비 하락(2021년 12월 2.93% → 2022년 6월 -4.55%)하였으며,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을 제외한 7개 사업자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함.
- 전체 DB 자산 감소 및 수익률 악화에도 불구하고, IBK기업은행(-12억)과 교보생명(-203억)을 제외한 7개 사업자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규모는 2021년 12월 대비 증가하였음.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1.3Q- ‘22.2Q)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1년 (‘21.3Q- ‘22.2Q)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신한은행	11,508	1.3	1.1	1.4	1.3	1.4	2.0	1,261	0.2	2.2	3.0	3.0	2.8	3.0
하나은행	9,996	1.4	1.2	1.5	1.4	1.5	2.0	980	1.5	3.4	3.1	2.8	2.6	2.9
IBK기업은행	9,379	1.1	0.9	1.2	1.2	1.3	1.8	254	-8.2	2.6	4.3	3.0	2.6	2.9
현대차증권	13,079	2.0	2.0	2.0	1.9	1.9	2.5	414	-6.3	1.6	4.1	2.9	2.6	3.0
미래에셋증권	5,283	1.6	1.5	1.8	1.8	1.9	2.4	937	-1.0	2.5	3.0	2.8	2.4	3.0
한국투자증권	4,352	1.8	1.6	1.8	1.8	1.9	2.5	866	-1.7	2.8	4.8	3.6	3.0	3.8
삼성생명	31,638	1.8	1.7	1.8	1.8	1.8	2.2	557	-7.7	5.5	7.0	5.8	5.0	4.6
교보생명	5,566	1.7	1.6	1.7	1.6	1.7	2.3	267	-11.3	5.0	6.8	4.8	3.6	4.0
미래에셋생명	3,874	2.0	1.9	2.0	1.9	2.0	2.5	379	-6.4	0.8	2.3	2.8	2.6	3.1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2년 6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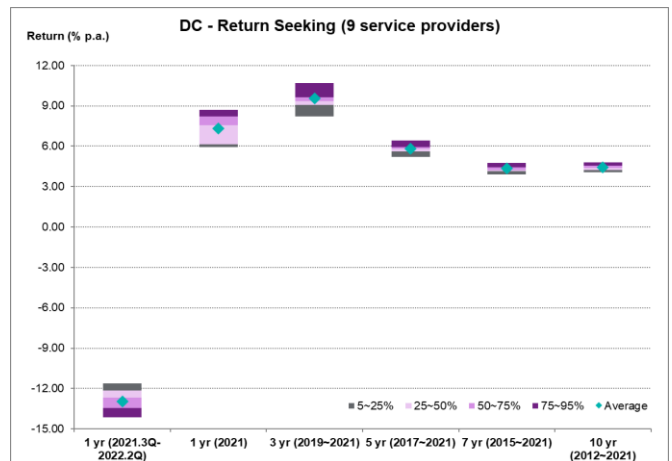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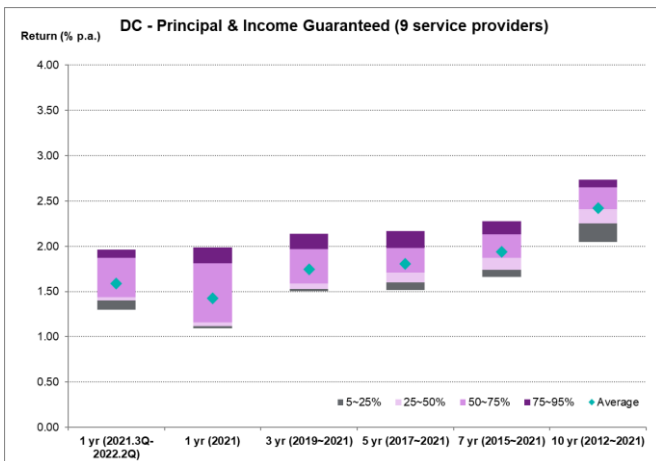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보장형 자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미래에셋증권(4,845억원), KB국민은행(3,595억원), 신한은행(3,279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제공 이율이 높아짐에 따라 1년 수익률이 2021년 12월 대비 대체로 상승하였음.
- 자사 원리금보장형 보험 상품 판매가 많은 보험 사업자에 비해 은행 및 증권 사업자의 장/단기 수익률이 다소 낮음.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2년 상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였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의 머니 무브가 진행됨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업권에 관계 없이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이 2021년 12월 대비 감소하였음.
- 보험업 사업자가 은행 및 증권업 사업자 대비 수익률 우위에 있는 DB와 달리, DC제도 장/단기 수익률은 업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Figure 03.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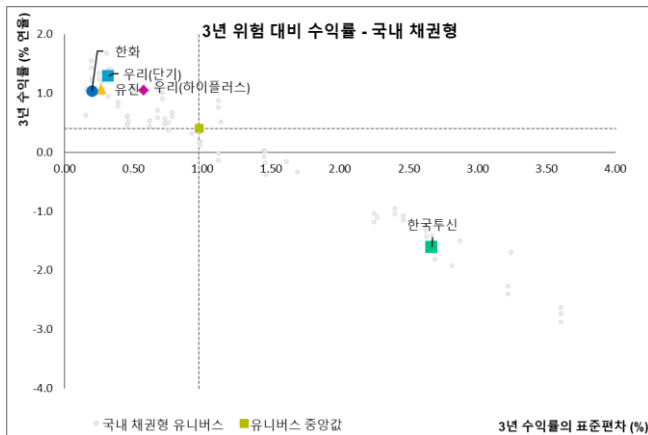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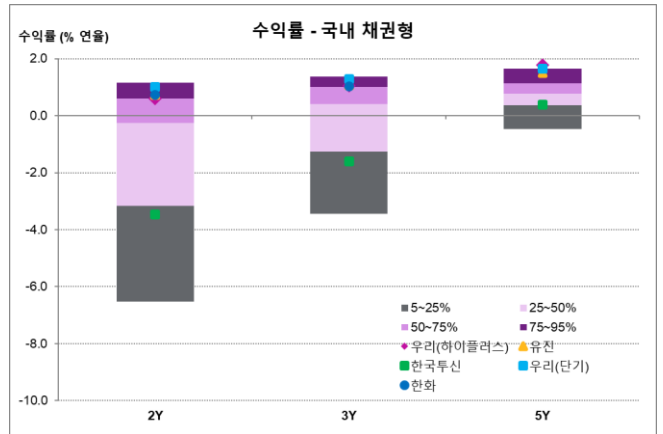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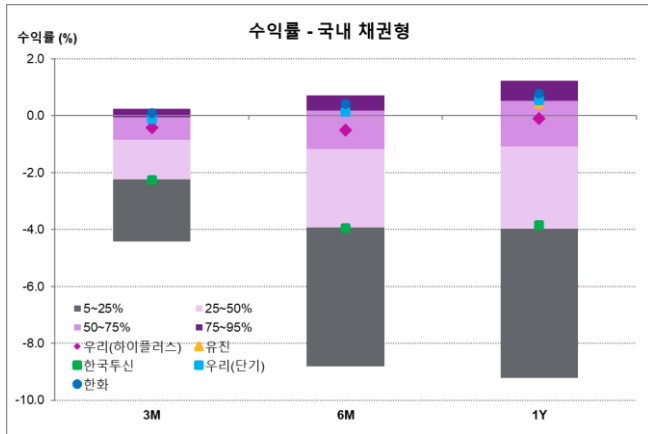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1.3Q- ‘22.2Q)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1년 (‘21.3Q- ‘22.2Q)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KB국민은행	8,709	1.3	1.1	1.5	1.5	1.7	2.2	1,475	-12.3	6.0	7.8	5.0	3.8	4.1
신한은행	7,970	1.4	1.2	1.6	1.6	1.8	2.3	1,548	-11.6	7.0	8.9	5.9	4.5	4.3
IBK기업은행	8,752	1.3	1.1	1.5	1.5	1.7	2.3	606	-12.7	6.4	9.4	5.7	4.4	4.1
미래에셋증권	2,771	1.4	1.2	1.6	1.7	1.9	2.4	3,773	-11.7	8.7	10.8	6.6	4.9	4.8
삼성증권	1,101	1.4	1.1	1.5	1.7	1.7	1.9	1,160	-13.5	8.7	9.7	5.8	4.5	4.3
한국투자증권	1,051	1.7	1.5	1.8	1.9	2.1	2.7	1,035	-13.1	7.8	9.6	5.5	4.1	4.5
삼성생명	4,461	1.9	2.0	2.1	2.1	2.1	2.6	669	-13.6	7.0	9.3	5.7	4.2	4.5
교보생명	1,960	1.9	1.8	2.0	2.0	2.1	2.7	528	-14.1	8.5	10.6	6.2	4.4	4.8
미래에셋생명	818	2.0	2.0	2.2	2.2	2.4	2.8	286	-14.2	5.9	9.9	6.0	4.6	4.6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형 (2022년 6월말 기준)

Figure 04.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63	0.24	0.72	1.22	1.17	1.36	1.65
상위 25%	22	-0.07	0.17	0.53	0.61	1.00	1.15
중앙값	3	-0.84	-1.17	-1.08	-0.26	0.40	0.78
하위 25%	0.3	-2.24	-3.92	-3.96	-3.17	-1.26	0.37
하위 5%	0.0	-4.42	-8.80	-9.21	-6.52	-3.44	-0.48
총 데이터의 수 (개)	157	154	154	149	116	92	38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수익률 (%)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자산신탁 1(채권)ClassC-P	383	-0.42	-0.50	-0.09	0.61	1.04	1.77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 ClassC-P2	213	-0.03	0.18	0.41	0.72	1.07	1.50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신탁 1(국공채)(C)	175	-2.25	-3.94	-3.85	-3.46	-1.61	0.38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ClassC-P	118	-0.13	0.14	0.55	1.00	1.29	1.66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 C-RPe(퇴직연금)	108	0.09	0.42	0.78	0.72	1.03	-



퇴직연금 펀드 분석 자료는, 한국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 채권형, 채권혼합형(채권 비중 60% 이상) 및 주식형 펀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펀드 유형

- 2021년 말에 비해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펀드 수 224개에서 157개로 큰 폭 감소함.
- 2022년 상반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펀드가 평가손실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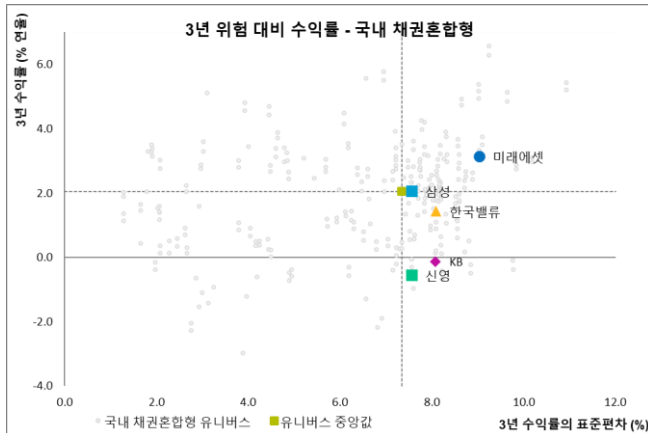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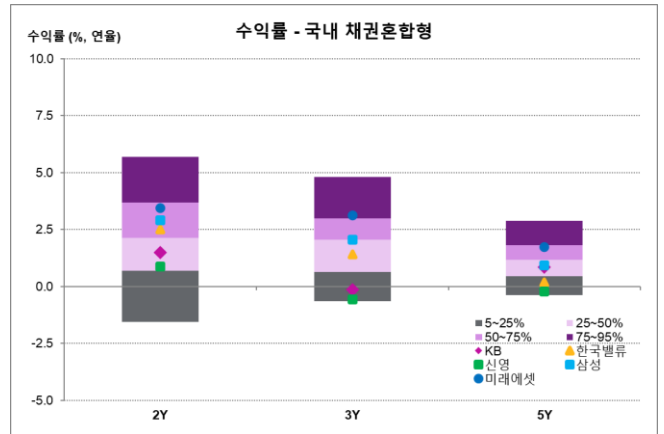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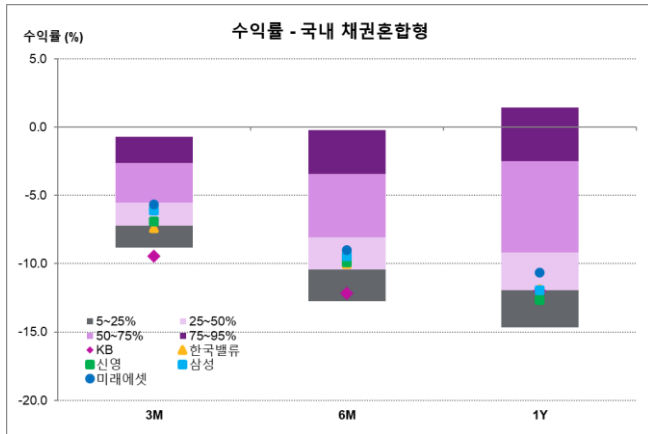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1년 말 5위였던 KB스타단기국공채펀드가 한화단기국공채펀드에 자리를 내어줌.
- 상위 5개 펀드 자산규모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3개의 펀드가 단기채 또는 단기국공채 펀드임.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혼합형 (2022년 6월말 기준)

Figure 05.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45	-0.71	-0.23	1.44	5.69	4.80	2.88
상위 25%	8	-2.62	-3.43	-2.50	3.68	3.00	1.82
중앙값	2	-5.51	-8.07	-9.18	2.13	2.05	1.16
하위 25%	0.6	-7.21	-10.43	-11.93	0.68	0.64	0.46
하위 5%	0.0	-8.80	-12.73	-14.68	-1.56	-0.63	-0.38
총 데이터의 수 (개)	382	380	375	357	305	285	150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자산탁(채권혼합)C	968	-9.46	-12.17	-11.98	1.50	-0.14	0.86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414	-7.39	-10.04	-11.86	2.51	1.42	0.18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자산탁(채권혼합)C형	392	-6.90	-9.87	-12.64	0.87	-0.56	-0.23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232	-6.12	-9.43	-11.93	2.92	2.05	0.93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자산탁 1(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167	-5.65	-9.02	-10.67	3.44	3.13	1.74



펀드 유형

- 2022년 상반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모두 큰 폭의 조정을 거치며 채권혼합형 펀드들도 8% 이상의 수익률 하락 (중앙값 기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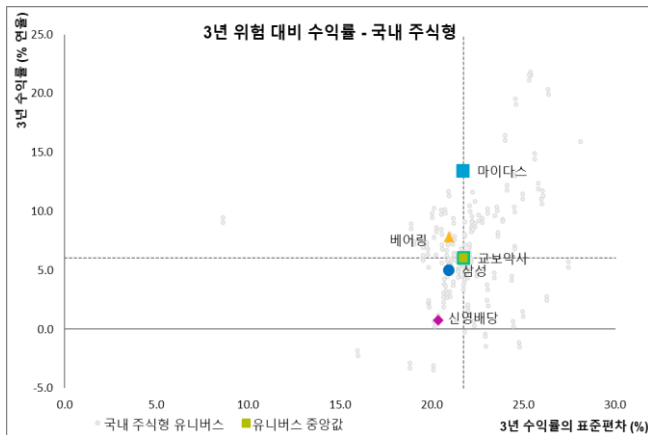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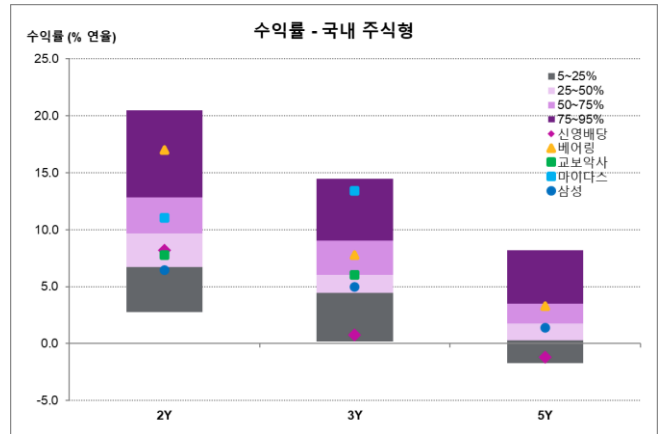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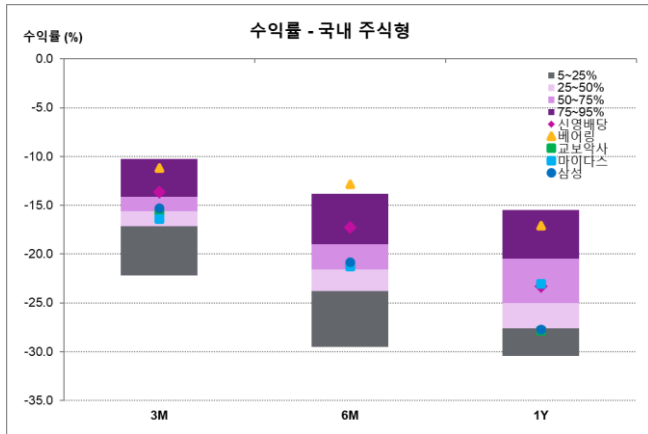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1년 말 대비,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모든 펀드의 자산규모가 감소함.
- 2022년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22% 하락, 3년물 국채금리가 1.79%에서 3.55%로 상승하는 등 큰 폭의 조정으로 상위 5개 펀드들도 9 - 12%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며, 중앙값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임.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주식형 (2022년 6월말 기준)

Figure 06. 퇴직연금 - 국내 주식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21	-10.23	-13.80	-15.47	20.49	14.48	8.22
상위 25%	5	-14.15	-19.00	-20.47	12.86	9.01	3.49
중앙값	0.6	-15.64	-21.56	-25.02	9.67	6.05	1.78
하위 25%	0.1	-17.17	-23.78	-27.60	6.71	4.45	0.28
하위 5%	0.0	-22.19	-29.55	-30.47	2.75	0.16	-1.73
총 데이터의 수 (개)	360	354	353	344	263	238	83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자산탁(주식)C형	157	-13.67	-17.30	-23.31	8.20	0.76	-1.21
베어링배당증권투자자산탁(주식)ClassC-P2	98	-11.17	-12.84	-17.11	16.98	7.78	3.27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자산탁 1(주식)ClassC-Pe	90	-15.58	-21.24	-27.88	7.77	6.01	-
마이더스책임투자증권투자자산탁(주식)C-Pe2	68	-16.40	-21.30	-23.05	11.04	13.41	-
삼성퇴직연금인덱스증권투자자산탁 1(주식)C	62	-15.29	-20.86	-27.74	6.45	4.98	1.41



펀드 유형

- 2022년 상반기 KOSPI 기준 약 22%의 조정을 보이며,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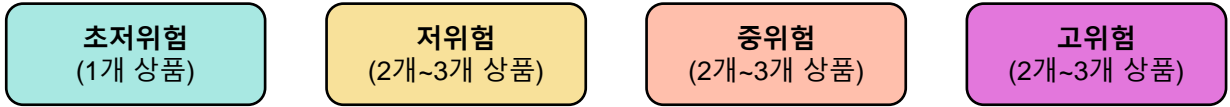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 역시 2021년 말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음.
- 2021년 말 기준 2위였던 미래에셋 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 펀드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삼성퇴직연금인덱스 펀드가 5위로 신규 진입함.
-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 중 2개가 배당스타일, 2개가 인덱스 펀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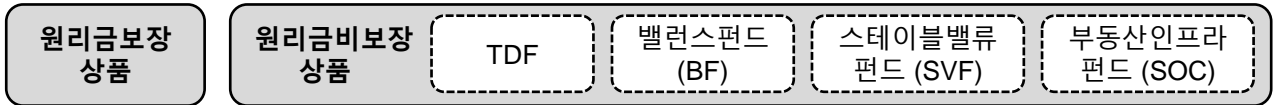
DC제도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경과 주요 사항

2022.7.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 각 위험별로 구성된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요건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최종 승인함



- 위험별로 제공할 상품은 아래 상품을 이용한 단일 상품 혹은 포트폴리오형 상품(최대 3개 이내 상품으로 구성) 이어야 함



- **적용 대상:**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후 운용지시 하지 않은 DC/IRP 가입자
 - 1) 최초 가입 이후 2주 이내 운용지시하지 않은 가입자
 - 2) 기운용상품 만료 후 4주가 경과하여, 재운용지시를 통보했음에도 2주 이내 운용지시하지 않은 가입자
- **주의 사항**
- 만기시점 이후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던 정기예금/GIC보험의 재예치(roll over)가 불가하게 되었음 (기존 가입자에 한해 2023.7.11 까지만 한시적 재예치 허용)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미도입에 따른 직접적 페널티는 없더라도 추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예상 Timeline

2022.7.12	•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2022.8월 ~	• 퇴직연금 사업자 고용노동부에 상품 심의 요청 (사업자별 7~10개 상품)
2022.10월말 ~ 11월 중 (예정)	• 고용노동부 상품 승인
승인 이후 ~ 2023.7.11	<p>(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 설정 • DC규약 반영 및 고용노동부 신고(사업자 지원) <p>(퇴직연금 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규약 변경, 동의 절차, 규약 신고 지원 • 가입자 상담 후 적합한 디폴트옵션 선택 가입 지원 <p>(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의 상품 선택하여 가입

*단,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적 시스템 반영 등은 2023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측됨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 2022 WTW. All rights reserved.

About WTW

At WTW (NASDAQ: WTW), we provide data-driven, insight-led solutions in the areas of people, risk and capital. Leveraging the global view and local expertise of our colleagues serving 140 countries and markets, we help you sharpen your strategy, enh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motivate your workforce and maximize performance.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we uncover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success – and provide perspective that moves you. Learn more at wtwco.com.

Contact Details

신윤현, CFA, FRM, CAIA
Head of Investments, Korea
+82.2.3430.2550
Andrew.shin@wtwco.com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twco.com